

9/24/23

설교 제목: 지혜 있는 자의 삶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5 장 15-21 절

(엡 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엡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전문에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어둠에서 빛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엡 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은 지혜나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본절에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한다’는 원어의 뜻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해 보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능대로, 감정에 이끌려,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어둠으로 있을 때 행하던 음행과 온갖 더러움, 탐욕 곧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실행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엡 5: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는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종말, 심판이 가까왔다는 사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 순위로 두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엡 5: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답게 존엄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에베소에는 술 취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 취하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술을 마시면 기억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 이성적인 판단 등을 관할하는 전두엽을 손상시켜 중추 신경이 가지고 있는 통제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흥분을 쉽게 흥분하게 되고 공격적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방탕하게 만듭니다.

자제력을 잃게 되어 의도적이지 않은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을 금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 특별한 능력이나 방언, 예언, 환상 등등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단지 특별한 능력이나 방언, 예언, 환상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 등은 단회적인데 반해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 등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들이 소생합니다.

(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겔 37: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 37: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겔 37: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겔 37: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겔 37: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겔 37: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넷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엡 5: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는 구약 성경 시편이 가지고 있던 정신과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를 가리킵니다.  
찬송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 부르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송 송영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 만들어져 불리는 찬송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노래는 개인의 신앙과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거나 여흥을 위해 부르는 음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데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명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째,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엡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독일 쾰른 지방 유대인 수용소 벽에서 발견된 어느 무명의 유대인이 죽음을 앞두고 쓴 글입니다.

I believe in the sun, even when it's not shining.

I believe in love, even when I don't feel it.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욕의 기도도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도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소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라고 단정하여 못견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정확하고 도도하게 흘러 갑니다.  
지금 당장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지나고 돌이켜 보면 섭리 가운데 톱니 바퀴 돌아가듯  
정확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그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침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엡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 헬라어 '포보'는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로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강요나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새 신분을 얻은 우리 성도는 새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사는 삶은 세월을 아끼고 주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